

<속기록 초안>

통일부 장관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는 등 남북 간 연락업무에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데 이어 급기야 4월 7일부터는 아무 설명도 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간 정기 통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결국 북한을 스스로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또한,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정부는 4월 6일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다.

2023년 4월 11일 통일부 장관 권영세.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통일부 장관 명의의 성명이 2013년 류길재 장관님 이후에 10년 만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관님 명의로 성명을 내신 까닭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른 성명 통일부 장관이 여러 번 했지만 관련한 성명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게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고 그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데다가, 우리 성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4월 7일부터는 남북 통신선에도 불응하고 있고, 아울러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북한이 잘못된 길을 버리고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직접 나서게 됐습니다.

북한은 이런 행동이 민족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지 않고, 어떠한 길을 이 순간에 선택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옳은 선택을 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북한 오늘 보도 보면 한반도 남쪽 지도를 띄워놓은 걸로 보이는데요. 북한 의도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에 더해서 지금 말씀, 질문 주신 것 같이 북한으로서는 지금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들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보도를, 북한 보도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더욱 공세적인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번에 장관님 이런 규탄 성명까지 맞물리면서 남북 대치가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남북 긴장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나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제가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지금 기자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 같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식의 긴장 고조 행위는 우리 한반도 전체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 이런 차원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질문> 아까 법적 조치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법적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

<답변>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우리가 합의서가, 아까 거론한 합의서가 있지만 그 합의서에 기초해서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추가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관련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보상이 이루어졌고, 또 이의신청도 충분히 받은 만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어려운 입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준비 동향이나 핵실험 동향, 지금 북한 도발 준비 동향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건 관계부처하고 잘 우리가 논의를 하고 협력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통일부 장관이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인으로 있을 때보다 통일부 장관으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자주 뵙지를 못하는데 앞으로 또 좀 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끝>